

청소년 ‘오토바이 폭주’ 극성... 심야 난동 잇따라

국가공휴일 제외 평일에도 성행 ‘경찰 조롱’ SNS에 버젓이 전시 상반기 5개구서 258건 신고접수 “현 16세인 면허취득연령 높여야”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공유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난폭 운전하고 있다. SNS 갈무리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심야 폭주행위를 벌이는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인에 비해 법규 준수 인식과 안전 의식이 미비한 청소년들의 일탈이 이어지자 이륜차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광주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 행렬에 가담한 A(19)씨 등 7명을 입건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 최연소 운전자는 16세였으며, 10대 3명과 20대 4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폭주족 모임 공지를 보고 광주·전남 각 지역에서 합류, 이륜차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위험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3·1절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8·15광복절 등 국가기념일에만 반짝 활개를 쳤던 도심 폭주족은 최근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광산구 수완동, 남구 봉선동 등 학원이 일대를 중심으로 그 축이 확산하



지난달 광주 동구에서 이륜차를 탄 폭주족들이 곡예운전을 하며 차선을 넘나들고 있다. 광주시 폐쇄회로 CCTV

처벌 수위는 물론 현행법상 만 16세인 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는 만 16세 이상, 사륜차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성년이 되기 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제재 없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륜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 등록 제도와 달리 사용신고제로 돼 있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제

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당장 계도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기에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교육을 위해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임방울대로와 수완사거리가 광주 폭주족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후회가 막심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 관내 5개 구에서 총 258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올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 역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이륜차 관련 사고 다발·다수 통행·소음 유발 지역 등에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치고,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6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사전 경고와 함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는 적발 시 단순 해산이 아닌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체증을 통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 숙박업소 업주 살해 용의자 60대 남성 긴급체포

광주 서구에서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은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인 서구 양동 한 모텔로 출동해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해당 모텔은 과거 B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현재는 영업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B씨는 숨진 지 한 달여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안면부 등이 훼손돼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추적해 이날 오후 3시께 서구 쌍촌동 직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절도 등의 혐의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상이 기자

‘섬마을 앰블런스’... 여수해경 폭염 속 응급환자 이송

올 상반기만 88명 이송해

여수해양경찰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섬마을 응급환자들을 육지로 이송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앰블런스 역할을 수행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22일 오전 7시25분께 여수 남면 금오도에 거주하는 A(70)씨의 통풍 증세가 악화되자 육상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지럼증과 무릎 통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는 해경 연구구조정의 도움으로 육상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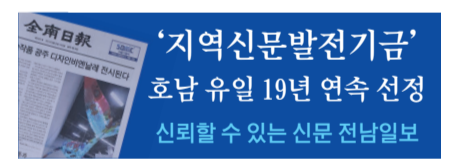
같은 날 오전 9시21분께 고흥 봉래면 애도(쑤섬)에서 마을주민 B(70)씨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등 거동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돼 여수해경이 B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B씨 역시 항포구에 대기 중이던 해경의 연구구조정으로 옮겨져 육상에서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 이송됐다.

여수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상과 섬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88건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총 88명이 병원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 인구 고령화로 응급환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비함정의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부서 구급 역량을 강화했다”며 “신속한 해상 응급 이송체계 확립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민의 든든한 앰블런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